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 Vol. 220 8월 2017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춘천교계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facebook.com/holycc1972

이달의 말씀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7:24-26)

사랑의 편지

기억상실증

한 사나이가 휴가를 얻어 여행을 떠났습니다. 집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여보 사랑해. 잘 다녀올게.

잘 다녀오세요. 건강 조심하고.

사나이는 여행중 기억 상실증에 걸립니다. 낯선 곳, 낯선 거리를 방황하면서 그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깊은 밤, 혼자 있을 때 그는 자기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공허한가. 나는 누구를, 무엇을 그리워하는가.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수첩에서 가족 사진을 보며 그는 울면서 묻습니다.

나는 왜 우는가.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나는 왜 이들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가.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중요한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나요.

삶의 의미를, 사랑을, 그리움을, 친절함을, 아름다움을 감사하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글 정원목사
(광고후원 김수정 사암교회 사모)



후원참여하기
1달에 1번,
커피 한잔의 후원이면 충분합니다.
131-005-937566 (신협)
172242-51-085114 (농협)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발행인 이사장 박인관 부이사장 이수형
춘천기독교연합회장 박삼칠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20 302호
T 033-256-1260 F 033-257-1260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부속 교회당 건물에다 '95개조 반박문'을 못박은 마르틴 루터. 근대는 이 못질에서 탄생했다.
<페르디난트 포웰스 1872년작>

45주년 2017 춘천성시선교대회 다가오다

9월 17일(주일) - 23일(토)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

9월 17일(주일)부터 23일(토)까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춘천성시선교대회는 원래 매년 10월 첫 주를 성시주간으로 정해 개최하고 있지만, 올해는 추석연휴로 인해 두 주간을 앞당겨 9월 셋째 주인, 9월 17일(주일)부터 23일(토)까지 열린다.

특히 올해는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는 귀중한 해이기에,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의 종교개혁 정신을 프로그램에 담아 내기 위해 준비되고 있다.

대회 주강사에는 최홍준 목사(부산성시화운동본부 전 이사장, 호산나 교회)가 초빙되어 말씀집회가 있고, 목양장로사역세미나(최홍준 목사)도 함께 개최한다. 또한 종교개혁500주년 기념 포럼(구영철 교수/감리교신학대 초청)과 전도특강, 사모세미나와 어머니기도회, 동성애세미나(길원평 교수/부산대), 영화상영 '루터'와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처음 개최하는 제1회 CCM경연대회가 준비되고 있다. 또한 선교단체와 기관의 부스 설치와 모든 세대와 성시본부 후원자가 함께 하는 만인기도회로 블레싱 춘천이 준비되고 있다. 장소와 자세한 프로그램은 9월호 특별판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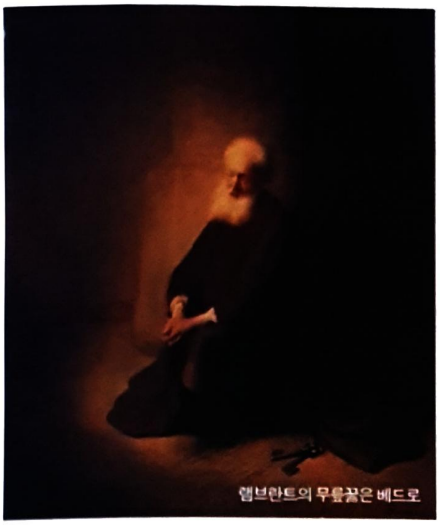
[편집부]

제72주년 광복절(8.15) 기념 연합 예배

제72주년 광복절(8.15) 기념 연합 예배가 8월 13일(주일) 오후7시에 춘천중앙감리교회(권오서 목사)에서 춘천기독교목회자연합회(손학균 회장) 주관으로 드리지게 된다. 이 날 강사에는 김기석 목사(청파감리교회)가 초빙되어 말씀을 전한다. 이번 강사이신 김기석 목사께서 담임목사로 사역하는 청파감리교회는 109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이다. 청파감리교회는 1908년 남대문밖 서울역 주변 선교를 위해 '연화봉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교회의 이름은 1945년 8.15해방이후 청파교회로 바뀌었다. 그 이후 6.25동란을 거치면서 부산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여러 목회자를 거치며 많은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오늘의 교회에 이르렀다. 청파감리교회에서는 지금까지 20여명의 목회자들이 이 교회를 섬겨 오셨다. 그 분들 가운데는 기미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분이셨던 오화영 목사님이 계시고, 6.25동란때 교회를 지키다가 납북되신 정달영 목사님도 계신다. 또한 공산주의와 통일교의 영향으로 젊은이들이 사상적인 혼란에 빠져있던 50, 60년대에 기독교의 입장에서 탁월한 비판이론을 수립하셨던 신사훈 목사님이 계셨다고 한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는 청파감리교회 김기석 목사께서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 강사로 오시게 되는데, 춘천의 모든 교회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연합 예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덕현 목사 (목회자연합회 총무 / 푸른초장교회)

춘천성시신문을 만드는 사람들 사무총장 조영춘 사무차장 최상도 사무국장 이은정 편집국장 이관형 _디자인 및 인쇄 로딘어스 070.4300.8731


렘브란트의 무릎꿇은 베드로

수련의 계절에 생각하는

수도원 영성

이제 각 교회마다 수련의 계절이 돌아왔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다. 오늘의 교회는 다시 개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늘의 교회개혁은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다시 혼탁해진 주님의 교회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할 수 있을까? 교회사에 나타난 영성운동, 특히 수도원 영성에서 그 희망을 찾는다. 모든 교회가 수도원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수도원적 영성에서 우리는 초기교회 교우들이 가졌던 거룩과 순결, 주님의 가르침에 순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충분히 배울 수 있다.

수도원 운동의 시작

수도원, 수도사라는 말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질감을 주는 단어이다. 수도원은 천주교나 러시아정교회 등 독신주의를 추구하는 종파에서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통속적이다. 하지만 개신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정통 기독교역사의 토양에서 자란 수도원운동을 바르게 이해 할 수 있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수도원 운동은 왜 일어나게 되는가? 4세기 초,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신앙생활의 자유는 보장되었고 장려되었으나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교회와 교우들은 급속한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타락해가는 천주교회가 견딜 수가 없어서, 깊은 산속과 아무도 없는 사막지역으로 들어가 주님과 거룩한 동행을 시도하였다. 거룩한 뜻에 동조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모아 그들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수도생활을 하였다. 시대마다 존재했던 수도원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산상수훈을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고자 하였다. 한 두 벌의 옷으로 청빈을 실천했고, 수시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수도원 안에서 채소를 기르며 자급자족하였으며, 화는 마귀를 닮아가는 것임으로 죄악시하였고, 중세시대에는 성경 몇 구절을 중심으로 반복해서 기도하는 '예수기도문'를 만들었다. 몸의 본능과 싸웠으며,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고자 노력하였다.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영성운동의 역사

4세기, 아타나시우스가 동방교회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성 안토니 등의 수도 생활에 영향을 받아 안토니 생애를 쓰기도 하였다. 제롬(347-419)은 동방에서 수도생활을 하다가 베들레헴에서 영성수도생활공동체를 만들었다. 여성공동체도 만들었다. 성경공부를 영적 식사로 생각하기도 하며, 수도사의 첫 모범을 보이게 되었다.

성 베네딕트(480-547)는 몬테 카시노에 수도원을 설립하고 베네딕트 수도회를 만들었다. 교회와 수도원의 거리감을 극복하고, 합리적 금욕생활 규칙을 일상화하였다. 겸손과 복종의 사다리로 영적 성숙을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였고, 말씀 연구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의 수도원 운동은 12세기까지 큰 영향을 미쳤고, 현재까지도 중요한 영성 규칙으로 활용되고 있다.

어거스틴(354-430)은 고후 5:5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장막집(육체)이 무너지면 성령의 역사로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집(신령한 몸)으로 옷 입는 것과 같다고 해석한다. 이것이 루터에게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의롭다 하심의 은총을 아이들의 동요소리 "텔레 레게"(집어 읽어라)라는 말을 듣고 로마서 13장을 읽다가 평안과 빛으로 다가오는 은총을 받으면서 거듭남을 체험하였다.

성 버나드(1090-1153)는 그리스도에 대한 강렬한 사랑 중심의 영성운동을 전개하였기에 루터와 칼빈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아가서 주석」에서 예수의 발에 키스하는 것을 회개, 예수의 손에 키스하는 것을 믿음, 예수의 입술에 키스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해석하면서 회개와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를 사랑해야 함을 에로틱한 표현으로 주장하였다.

성 도미니크(1170-1221)와 도미니칸 운동은 사도 바울을 모델로 삼고, 설교로 사람들을 얻으려고 하였다. 1216년 교황으로부터 교단설립을 허가받았다. 자기 부정과 걸식 수도의 원리를 채택하였다. 그래서 매일 양식을 구걸하였다. 죽을 때까지 60개의 수도원으로 늘어났다. 주지주의적이고 귀족주의적 수도원 운동을 일으켰다. '주님의 개'란 이름의 뜻대로 진리를 외치면서 이단을 정죄하는 종교재판에 앞장섰다. 토마스 아퀴나스, 엑크하르트, 타울러 등 많은 학자들을 배출하고, 많은 교황을 배출하였다. 역대 교황 중에서 도미니칸 수도회에서 가장 많은 교황이 나왔다.

성 프란치스코(1182-1226)는 아씨씨의 옷감장사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성 다미안 교회를 복구하며 아버지로부터 상속권을 박탈당한 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 아버지가 없다고 강조하며 수도생활에 들어갔다. 중병을 한데 앓았고, 그 후 회개하고 문둥병자들을 사랑하는 등 소외된 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절대청빈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새들에게 설교하며 대화하기도 한 것으로 유명하며, 늑대를 변화시키는 대화를 하기도 하였다. 40일간의 금식기도 끝에 양 손과 양 발에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난 스티그마가 생기기도 하였다. 프란체스칸 수도원 운동은 민중들을 중심으로 형제 수도사들을 모아 들였다. 그리고 성녀 클라라의 자매들과 프란치스코의 형제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집회를 하였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불이 났다고 생각하여 놀라 모였다가 성령의 불이 붙은 것을 확인하였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는 「신학대전」을 통하여 중세 스콜라주의 도덕신학을 집대성시켰다. 이성과 자유의지를 통한 신학적 참구와 구원의 추구를 강조했다. 하나님의 존재를 5가지로 증명하는 자연신학을 형성하였다.

토마스 아켐피스(1380-1471)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저술을 통하여 가장 의롭고 거룩한 영성은 예루를 믿는 것만 아니라 예수를 본받는 것임을 강조한다. 주님이 말씀하셨듯 하나님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현존한다. 모두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영적인 것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야 한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나라가 오는 것을 볼 것이다.

16세기의 아빌라의 테레사(1515-1582)는 십자가의 성 요한과 함께 관상침묵기도로 가톨릭 종교재혁의 바람을 일으켰다. 관상적 생활이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이 부단히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을 부르시는 것을 읽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들었다. 그녀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였고, 수동적 관상기도, 침묵기도, 하나님과의 합일의 기도가 습관적 기도의 형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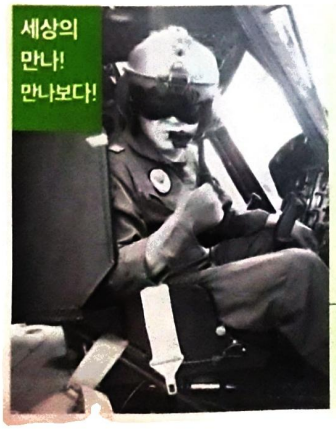

▲ 그리스 스테파노스 여성 수도원

맺으면서

그동안 수도원이라고 하면 천주교만의 전유물로 생각해 온 경향이 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에도 수도원의 영성은 개신교회 기독교공동체내에서 꾸준히 맑은 물을 공급해왔다. 거룩한 도성을 향해 가는 형제자매들로서 이 수련의 계절에 주위에 가까운 개신교 수도원이나 기도원을 찾아봄이 어떨까

(편집부)

세상의 만나! 만나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사일생을 겪은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작년 2월 15일 춘천 샘밭에 위치한 항공부대에서 발생한 천정벼락 같은 헬기사고는 승무원 네 명중 세 명이 사망하고 홍순앙 준위 한사람만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홍준위는 사고 당일 새벽에 사순절 40일 새벽예배를 다녀왔다고 한다. 사고발생 직후 부조종사와 승무원들 시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기체의 잔해 속에서, 조종석에 앉은 채 하늘 문이 열려 있고 그 가운데 사론의 꽃봉오리를 보았다고 한다.

홍순앙 집사 만 51세 (1966년 11월생)
1989년 25세 대전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
현재, 2군단 한빛교회 섬김 / 205항공대대 헬기조종사

사고이후 17개월 동안 10회에 걸친 전신수술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는 홍준위는 주님이 주신 신성한 건강으로 오는 8월초에 퇴원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홍준위가 왜 사망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했는지 그 이유는 누구보다도 홍준위가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님만 바라본다는 홍준위. 그의 카카오스토리 대문 글에는 아래와 글이 적혀있다.

'기적으로 살아난 삶은 오래오래 주님의 영광을 나타냄이라'

오늘도 극한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빌며 뒤늦게나마 순직하신 세분의 장병들과 남아 있는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교육

새로운 기독교 교육이 온다

SOT(School of Tomorrow) 교육 프로그램

자녀를 둔 모든 크리스천 부모들의 고민은 교육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싶다. 입시 위주의 교육, 성경의 가르침과 동떨어진 교육이 부모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한다. 사실 더 큰 고민이 있는 분들은 오지에 나가있는 해외선교사들이다. 그나마도 일반적인 학교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가운데 오지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일반 가정에서도 기독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수년간 L선교지역에서 대학교육사역과 선교사역에 힘쓰다 일시 귀국한 이용훈 전문강사를 통해 새로운 기독교 교육으로 각광받고 있는 SOT(School of Tomorrow)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본다.

1.기독교 교육이란?

기독교 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주어진 현실을 미래의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볼 수 있게 해 준다. 또 현실을 복음의 가치로 바꿔갈 수 있도록 삶과 의식을 일깨우는데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 교육의 교육적 본질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단순한 지식전달이나 기술습득을 넘어 전인적 인간형성을 지향한다. 전인적 인간이란 지식과 감정, 태도와 가치 등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것은 지식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동시에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지향한다. 따라서 교육에는 의도성과 체계성이 포함된다(이금만 한신대 교수).

2. SOT(School of Tomorrow) 교육

SOT(School of Tomorrow)는 A.C.E(Accelerated Christian Education)의 다른 이름으로 주로 미국 외에서 사용되는 이름이다. 1970년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기독교 교육의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현재 145개국, 6000여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텍사스에서 처음 학교를 시작하여 많은 학교를 세우고 많은 학교들을 지원하면서 '교육선교'라는 새로운 형태의 선교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 경건한 성품을 길러내는 성경에 기초한 프로그램
(Biblically Based Program Infused with Godly Character)

경건한 성품 훈련이 전 교과과정에 소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미래에 경험하게 될 여러 상황을 준비하게 한다. 교제 속에 등장하는 각 인물들의 성장과정을 통해 어떻게 삶에 성품이 적용되는지 보여준다. 성품에 기초되는 말씀과 더불어 중요한 요소는 성품을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하다. SOT는 성실성과 정직성을 요구하는 과정이므로 성품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학습의 열매는 성품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SOT 프로그램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 개인별 지도 방식(Individualized Approach)

SOT 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개별지도 방법이다. 이 접근 방법은 개인별 맞춤의 개념을 넘어서 각 개인의 특성, 능력, 성향을 고려하여 완성도 있는 결과를 목표로 지도하는 방법이다. 교실도 이에 맞추어 개인별 책상으로 재구성되었고, 교사 학생 간 일대일 지도로 배움과 익히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난다. 강의 위주의 교실에서는 선생님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주된 시간을 차지하고, 배운 후 곧장 익힘으로 연결되지 않고, 또 다른 강의 시간으로 넘어간다. 학생에게 학습은 배움보다 익힘이 길어야 하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이것이 뒤바뀌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강의 위주의 수업에서는 개인의 이해속도와 능력을 배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전달인 반면, SOT 방식은 개인의 학습 시간, 이해 능력에 따라 진도와 과목 배정이 달라진다.

· 자기주도, 완전학습 교과과정
(Self-Instructional, Master-Based Curriculum)

학교 교실의 수업은 교사 주도의 수업이며, 학생들이 이해도가 최하 단계만 벗어나면 과락을 면한다. 교사가 학생들의 개인 이해도를 배려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다. 그러나 SOT에서는 학생들이 배운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익히도록 각자의 시간과 이해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학습의 완성도가 높다. 또한 배움의 책임과 의무가 학생에 있는 것을 강조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선한 일꾼의 자세를 가진 자기 주도 학습을 지도한다. 강의로 익숙해서 수동적이기 보다 내용을 본인이 꼼꼼하고 철저하게 이해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기름으로 학습의 가장 중요한 성품인 성실을 기르게 된다.

· 부모님의 적극적인 참여(Parental Involvement)

자녀 교육의 성공이 부모로부터 시작한다는 믿음으로 부모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한다. 수업 시작 전에 두 번에 걸쳐 학습에 임하는 자세와 구체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 부모와 학생이 같이 교육을 받는다. 이 과정을 통해서 부모님도 SOT의 구체적이고 꼼꼼한 학습 체계에 대해 익히게 되며, 지속적으로 자녀들의 학습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부모님의 관심도가 자녀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일반 학원에 자녀를 위탁하여 성적만으로 결과를 측정하지 않고, 공부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자녀를 지도하게 된다.

3. 자주하는 질문과 대답

1) SOT가 사용하는 커리큘럼은 무엇인가요?

School of Tomorrow(이하 SOT)는 미국 A.C.E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Accelerated Christian Education사는 1970년부터 성경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자기 주도적 학습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이를 공급해 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6,000여개가 넘는 Christian School과 10,000여개가 넘는 홈스쿨에서 SOT를 커리큘럼으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획일화된 제도권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다원화 사회에 걸 맞는 자기 주도적 완전학습 교육시스템입니다.

2) 몇 학년부터 사용이 가능한가요?

K-12 (유치원~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습이 가능합니다. 나이 또는 학령(school age)에 맞춰 학습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최초 진단평가를 통해 학생의 학습수준을 파악하고, 그 수준에서부터 개별적으로 학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3) 어떤 과목들을 배우게 되나요?

영어(English), 수학(Mathematics), 과학(Science), 사회(Social Studies), 어휘(Word Building), 작문 및 문학(Literature and Creative Writing), 그리고 기타 선택과목(Bible, Health, Speech외 11개 과목)등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과목은 기독교적세계관을 기반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고, 영어로 학습하게 됩니다. 그 외 음악, 미술, 체육, 제2외국어 등 자기계발 프로젝트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4) 그럼 학력 인정은 어떻게 받나요? 검정고시를 보나요?

미국교육청에 인가 받은 SOT 학교로 미국 학력이 인정됩니다. 단, 12학년까지 교과를 모두 마친 경우에 해당됩니다. 검정고시를 보지 않아도 입학이 가능한 한국대학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속적인 학습으로 9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과정들 중 A.C.E사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을 충실히 이수했을 경우에는 미국 Lighthouse Christian Academy에서 발급하는 Diploma(졸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졸업장은 미국에서 학력이 인정되는 졸업장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원할 경우 미국식 수능(SAT)를 본 후 어느 학교든 지원이 가능하며, 그 외 해외의 대부분 대학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SOT 교육으로 수료한 학생들이 영미권을 포함 전 세계 약 2,000여 개의 대학에 입학한 통계가 있습니다.

글/ 이용훈 전문강사



이용훈 전문강사는 내년 초에 귀국, SOT시스템을 통한 기독교 대안교육을 꿈꾸고 있다. 공교육이 무신론을 비판 없이 가르치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성시화를 꿈꾸는 교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6)

글로벌 리더의 첫걸음

자연유치원

원장 이관형(한길교회 권사)

24312 강원도 춘천시 복골길 29

☎ 033.241.5511, 5522



2017학년도 유치원 하반기 장학생 선발

자격: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 혹은
전도사 자녀로 2012년생 3명 선착순

한길교회 김승덕 장로 (효제초교 교장)

시조시인 퇴직 기념 및 시조집 출판기념 시조화 전시회

(시조 보급 및 필리핀 다구판 지역 어린이 장학금 지원)

일시 : 2017년 8월 11일(금)~8월 17일(목)

장소 : 춘천문화원 금병전시관 초대일시 : 8월 11일 오후 3시



신앙 칼럼

동면 할머니



글/ 김승범 목사
(춘천제일성결교회 담임목사)

진공청소기 고치러 서비스 센터를 찾았다. 매장 입구로 들어가려는데 고령의 할머니가 나를 보고 반가운 듯 급히 다가와 종이 쪽지 한 장 내밀며 "여기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신다. 들어다보니 「LG 서비스 센터」라고 쓰여 있다.

"할머니 바로 찾아 오셨어요. 여기가 거기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오셨는데요?"

"아~우리 손자가 사준 핸드폰이 안돼요."

"할머니 저 따라 오세요. 저도 거기에 가려는 중이에요"

할머니를 모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수리코너로 갔다.

"할머니, 여기 있는 아가씨들에게 어디가 안 되는지 자세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직원에게 잘 좀 설명해 드릴 것을 부탁하고 나도 고장 접수를 끝내고 자리에 앉았다.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요 앞에서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쉽게 찾아 왔네요. 고마워요"

몇 마디 주고받는 사이에 할머니 핸드폰이 벌써 다 수리가 되어 나왔다.

"선생님 고마워요. 그런데 어디로 나가야 하는 거지요?"

"네 저쪽으로 가셔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누르시고....음...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동면이에요. 옥광산 아세요?"

"아~알아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10분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제 차로 모셔다 드릴께요."

"아니에요 여기서 버스타고 가면 되요" 막 일어서려는 할머니 팔을 붙잡아 앉혀 드렸다.

"너무 고마우신 분이네요 세상에.."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직원 아기씨 둘, 50대 후반 부부. 나는 순간 그들의 얼굴에서 행복을 볼 수 있었다. 그들도 역시 그 할머니를 바로보고 있노라니 여간 심란하지 않았는가 보다. 혼자 사시는 노인 같은데 어떻게 여기 까지 물어물어 왔는지, 또 어떻게 가실 건지. 그런데 나와 할머니와의 대화를 듣고 있던 중에 내가 모셔다 드리기로 결정 된 순간 그들의 얼굴은 무척이나 안도하는 모습이랄까? 감사의 마음이라 할까? 좌우지간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던 그 매장 안에 어떤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50대 후반 부부가 입을 연다.

"할머니 요즘에도 이런 고마운 분들이 가끔 계세요" "아 그러게요"

차를 타고 가는 중에 할머니 연세가 우리 어머니 연세(87세)와 같은 것과 4남매를 두었으며 너무 가난해서 자식들 공부도 못 가르쳤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할머니 교회는 다니시나요?"

"아직 못 갔어요. 동네에 나를 보면 친절하게 해주시는 목사님이 교회 꼭 한번 오시라고 하시는데 못 갔어요. 근데 왜요?"

"네 제가 목삽니다."

"네~아, 어쩐지 인상이 참 좋더구먼. 아이고, 이런 목사님 만나서 오늘 호강하네요." "할머니 지금까지 고생하시고 살아오셨는데 이제부터 하나님 믿고 남은 인생도 복 받고 사시고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영생복락을 누리셔야지요."

"아 사실 막내 며늘아기가 교회에 다니는데 그 아도 목사님과 같은 말을 했으요. 교회 나가라고. 네~꼭 교회 나가겠습니다. 고마워요."

더 이상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가서 골목입구에 내려 드렸다. 돌아서서 올 때까지 가시지 않고 손을 들어 인사하시는 모습이 마치 잠시 왔다가는 아들 배웅하시는 어머님 같아서 가슴이 뭉클했다. "하나님, 저 할머니 꼭 구원시켜 주십시오."

만인기도 네트워크 기도제목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1. 새로 출범한 대통령과 정부각료들이 국민의 뜻을 잘 받들며 국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소서.
2.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운영을 통해 자랑스런 한국의 이미지가 세워지며 특히 영적 선교적 역할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게 하소서.
3.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개헌논의에 동성애 동성혼의 개헌반대의견이 분명히 명시되며 건강한 국가를 위한 초석을 놓을 수 있게 하소서.

· 춘천 교회와 춘천시를 위한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1. 만인기도 만인 후원운동을 통하여 춘천의 영적 기상도가 변화 될 수 있게 하소서.
2.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 춘천을 거룩한 도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비전과 기틀이 마련될 수 있게 하소서.
3.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 춘천을 위한 경제적 기틀이 속히 이뤄지되 서울 속초간의 전철 확장, 삼악산 로프웨이 스카이 웨이와 짚 라인등으로 살기 좋은 행복도시 비전이 활성화 될 수 있게 하소서.
4. 차기 시장과 시의원 선거등 다가오는 선거에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는 일군들이 설 수 있게 하소서.

· 춘천시청 신우회에서 주신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1. 직장 내에서 친교, 전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일할 수 있게 하소서.
2. 시청 신우회가 주님 안에서 직장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소서.
3. 청사 건립 중으로 시청 내에서 신우회가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예비 되게 하소서.

· 강원도청 직장선교회에서 주신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1.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도청이 되게 하소서. 올바른 법 집행과 소외된 이웃을 돌아봄으로써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게 하소서.
2. 도지사와 간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요현안을 잘 풀어가게 하소서.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통해 강원도와 이 겨레가 용서와 화해,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선교 한국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소서.
   -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어 춘천성시화의 디딤돌이 되게 하소서.
   - 공직자와 도민들이 힘을 합하여 강원도 3%라는 한계를 극복하게 하소서.
3. 직장선교회를 위한 기도
   - 일터 내 교제, 기도 등 작은 모임 등이 활성화되어서 동료들과 하나님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신우회와 선교회 되게 하소서.
   - 춘천직장 선교대학으로 파송한 훈련생들이 주님의 제자로 견고히 서게 하소서.
   - 정직, 경건한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게 하소서.
   - 시군청 직장선교회, 신우회를 세우고 섬기는 장자 선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 일터 내 충성된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세워져 춘천성시화에 동참하게 하소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춘천 소그룹

CCF(Chuncheon Church Fellowship)를 소개합니다.

CCF(Chuncheon Church Fellowship)은 1998에 CCF(Chuncheon Christian Forum)으로 시작되었다.

기독교적 영성을 가지고 사회 각 분야에서 사역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보다 깊은 신앙적 소양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모였다. 매주 수요일 아침에 모여서 발표 및 토론을 갖다가 목회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지금의 모임으로 발전되었다.

20여년 가까이 매주 수요일 아침에 독서 발표를 하는데, A4 10장 분량으로 요약한 내용을 복사해서 읽고 토론하고 있다. 도서는 신학과 목회, 인문학 등을 선정하거나 자유 선택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12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6개 교단(장로, 감리, 성결, 침례, 순복음, 그리스도)에 소속되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있다.

매주 모이는 목회자의 독서모임 외에 교회연합의 의미로 매년 연합부흥회와 필요에 따라 학생연합수련회를 개최하였다. 연합된 힘으로 해외선교(인도 비하르)에 함께 사역하였다. 인도 이엉길 선교사의 사역에 동역하기 시작하여 문맹퇴치학교를 시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진베리아에 미션스쿨 (Light and Salt Mission School)을 세웠다. 2016년 10월에 주 정부에 정식등록(8학년)했고 현재 550명이 재학하고 있다. 이 미션스쿨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고 현재는 4개 교회가 세워졌다. 1개 교회는 건축 중이고, 3개의 가정교회가 운영 중이다.

또한 농장을 시작하여 CCF의 망고나무 심기 운동의 일환으로 헌금하여 3,200주를 심었다. 선교의 자립과 더불어 현지인들에게 하나의 본으로 삼고자 운영하고 있다. 또한 비하르 신학교(ICPM)를 세워서 1기 졸업 및 목사 안수를 위한 추가 공부에 임하고 있다. 그리고 졸업생 중 10명이 교회 개척을 준비 중에 있다. 현재는 2기가 준비 중에 있어 9월 중으로 개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신학교 운영을 위하여 CCF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명씩 릴레이로 들어가서 강의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를 감당할 예정이다.

명예기자 고재만 목사



영화

예수는 역사다 (The case of Christ)

그 언젠가부터 신문에 영화 광고가 사라진지 한참 된 것 같다. 으레 화장실에서 조간을 펼치고 하루를 시작하던 어느 날 하단 어느 면에 눈에 들어오는 광고가 있었으니 바로 "예수는 역사다". 처음엔 뮤지컬 공연 포스터인가 했는데 분명 영화 광고였다. 마침 그날 다른 영화를 볼 예정이었는데 그래서 영화관에서 표를 끊고 대기 중에 휴대폰 문자가 왔다. 성시신문 편집부 간사님이었다. "예수는 역사다" 영화 소개 기사를 보내 달라는 것이었다. 여기서부터 뭔가 심상치 않아졌다. 영화가 끝나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로비에서 스치듯 눈에 뜨이는 포스터, "예수는 역사다". 비로소 일견하고 돌아와 확인해 보니 상영일이 일주일 뒤... 그리하여 벼르던 끝에 영화를 보았으니 참으로 무슨 계시처럼 만나게 된 작품이었던 것이다!

필자는 아주 오래전 30대 후반쯤이었던가 성경은 하나의 거대한 영적 저널리즘(Spiritual Journalism)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어느 칼럼에 피력한바 있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history)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works)로 계시되는 여러 사건들을 여러 성경 저자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 전하여 주는 일종의 저널리즘이라고 느꼈었다. 이 영화는 바로 그 오랫동안의 필자의 소견을 확인시켜주는 귀중한 단서인 것이었다.

유명한 저널의 유망한 기자인 주인공이 예수님의 역사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그린 것인데 주목하여야 할 점은 그가 철저한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진실을 파헤치고 전해야 하는 기자로서의 사명감과 함께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직업의식의 투철함으로 성경의 역사적 사실과 부활의 증거를 파악하려는 노력의 끝에 결국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야 마는 감동의 드라마인 것이다.

그 시작은 미미하였으니 바로 주인공의 명성과 미래가 보장되는 즈음 가족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딸의 돌발적인 응급상황에 도움을 준 신도인 간호사로 인해 그의 아내가 교회를 출석하면서 무신론자인 그와 감동을 빚기 시작하며 서서히 드러나는 믿음의 실체를 만나게 되는 과정은 참으로 극적이며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 영화의 감독은 몇 년 전 필자가 소개한 〈신을 믿습니까? Do you believe?〉라는 은혜로운 영화를 만든 존 건 Jon Gunn이었으며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2002년에 쓴 동명의 책을 스크린으로 옮긴 것인데 말하자면 기자로서 끊임없이 의심과 추적을 거듭한 끝에 도달한 진리로 인해 목사가 되기까지의 실제 이야기임으로 해서 그 감동과 은혜로움이 각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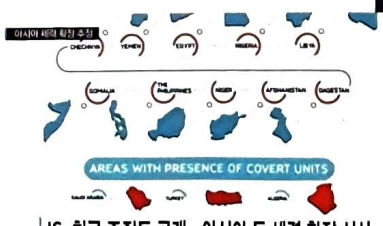
여기서 case는 어떠한 격(格)이나 경우, 혹은 흔히 말하는 가방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판례, 논증의 뜻을 갖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성,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그 상당한 분량의 사본과 기록으로 나오는 자료들에서 드러나는 그 정확성과 진실로 스스로 증거가 되어 가는 것을 아주 설득력 강한 전개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저널리즘의 정신이고 그리하여 그러한 사실성에 기반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다. 주인공의 아내가 끊임없는 기도 중에 은혜 받는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로 은혜로운 열매를 맺어가는 정녕 아름다운 영화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CBS에서 올해 처음 내 놓은 영화로 조용히 입소문을 타고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인데 더욱 확장되어 은혜의 강물이 넘치기 기도해마지 않는다.

글 / 김춘배 기자

기고

아시아 국가들이 이슬람국가(IS)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IS, 최근 조직도 공개…아시아 등 세력 확장 시사

IS는 핵심 거점지이자 '돈줄'이던 이라크 모술에서 지난달 29일 사실상 패퇴했다. 수도 격인 시리아 락까에서도 영향력을 잃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 출신의 지하디스트들은 자국으로 돌아가 현지 추종 세력과 함께 새로운 거점 지역을 구축하거나 테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 18억 명의 무슬림 중 약 61%가 거주하고 있다. IS 추종세력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유럽과 미국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지역은 올해 5월부터 IS를 추종하는 마우테 반군과 정부군 간 교전이 한창이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최근 "반군들을 생포하지 말고 사살해도 된다"는 명령까지 내리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사태는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5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외 IS 추종 세력들도 마우테 반군에 가담하고 있다. 민다나오에서 필리핀 정부군에 사살된 반군 중에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필리핀 의회는 개엄령을 연말까지 연장시켜 달라는 두테르테 요청을 압도적 표차로 승인하였다.

약 2억6000만 명의 인구 중 90%가 이슬람을 믿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 인도네시아도 최근 정치권과 사회에서 강경 이슬람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또 제마 이슬라미아(JI) 같은 극단주의 단체들의 활동도 꾸준하다.

친미 국가 이미지인 한국과 일본도 안심할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무슬림 인구 비율이 낮아 IS 추종 세력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국립외교원은 지난달 발표한 'IS 3년, 현황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이슬람권에서 대표적인 동북아의 친미 국가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을 위험으로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과 동맹이며 군사 교류가 활발해 IS 추종세력이 언제든 테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개신교 선교사 파송 수가 많고, '한류' 대중문화가 국제적으로 인기가 많다는 것도 우려해야 할 점이다.

글 / 정형만 원장(참사랑내과의원)

선교소식 1

지역부흥지원센타 오챠꼬하우스

이시노마끼 오아시스교회 조영상 목사

이시노마끼 오아시스교회
신예배당 용지취득의 안내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항상 일본선교와 이시노마끼오아시스교회를 위해 기도와 지원을 해주고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2011년 6월부터 지역주민의 선의로 인해 현재의 장소를 무상으로 빌려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5년이나 유용하게 사용했던 정든 건물은 새로운 장소로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역 복구지원을 했던 오챠꼬 하우스 오아시스 센타의 활동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초청을 받게 되었으며 어느덧 현재의 장소는 비좁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배당으로 사용해 왔던 시설은 재해직후에 가건축물로 지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사용기간도 얼마 남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재난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너무 크고,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선교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3.11 동일본 대재난지역에 저희 한국선교사에 의하여 최초의 예배당 설립이 추진되는 것을 기뻐해주시고 다시한번 일본선교의 응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전장소는 현재의 장소에서 약 1km, 국도 398 호선 동쪽에 위치한 7-11 편의점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있고 새로 건축된 시영부흥공영주택의 근처이며 충분히 넓은 주차장도 있어서 최고의 입지조건입니다. 쓰나미로 인



해 최대의 피해가 있었던 항구도시의 중심지에 있어서, 지역에 더욱 밀착된 봉사를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오랜기간 주민들이 애용했던 편의점 시설임으로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예배당(편의점교회가 되겠슴)과 이시노마끼 부흥지원센타(선교센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중에는 새로운 장소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미전도지 교회개척을 위한 모든 필요가 속히 채워지고 재난지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가 드려지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계획을 위하여 협력 후원해 주세요.
한국 외환은행 071-1813189-9 조영상

선교하는 교회 스토리 1

"춘천광염교회"의 선교이야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우리 광염교회의 영원한 모토이다. 그렇다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은 무엇일까? "영혼구원"이란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다만 내 교회주변, 우리나라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일 것이라고 여겨 광염교회는 두 가정으로 시작하면서 첫 주부터 헌금의 30%를 따로 구별하여 선교로 쓰려고 떼어놓았다. 그런 정신은 25년이 지난 지금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교회는 안으로는 노방전도를 매주 화, 목요일에 교회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회적으로는 1년에 한 차례 한사람 전도하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새로운 방법으로는 관계중심의 사랑의 팀 전도를 한다. 즉 부인은 잘 믿지만 남편은 불신인 성도를 대상으로 그 주변 성도들에게 팀을 묶어 드려 함께 관계를 강화하여 전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번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도 그런 목적으로 팀별로 참여하고 후속적인 모임을 가져 복음을 제시하려고 한다. 어머니기도회를 통하여 불신 엄마들을 초청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자연스레 복음을 접하도록 하고 있다. 겨울이면 붕어빵도 굽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정기적으로 가지면서 접합점도 찾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2012년에 자원성도 25명으로 분립개척을 실시하여 자립교회가 되었다. 2017년에 부목사가 개척하여 지원을 하였다. 국내 비전교회 6곳, 군선교를 비롯한 기관 6곳을 지원한다. 아가페아스쿨을 10여년 운영했고, 빛소금 작은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다.

해외적으로는 교회개척 후 필리핀에 집중적으로 선교하였고, 춘천 남지방회를 통해서 10개 교회를 건축하는데 힘을 썼다. 10년 전에 인도 북부 비하르주 친베리아라는 마을에 본 교회 출신 김진만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마을 마다 문맹퇴치학교를 실시하다가 발전하여 1억 2천만원을 들여 미션스쿨을 건축하였다. 정부허가를 받아 현재 600여명의 학생들이 1-10학년까지 운영되고 있다. 나아가 신학교를 3년 전에 세워 3명의 목사가 배출되고, 10여개의 교회를 세워 건축하였다. 5년 전부터는 만평의 농지를 30년 장기 대여하여 시범 농장화하여 농민들을 일깨워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고 있다. 3년 전부터 망고나무 심기 운동을 벌여 자립선교회로 방향을 틀고 있는 중이다. 친베리아 마을 출신의 목사 3명을 이번 9월 중순에 한국에 초청하여 영적발전을 꾀



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파송선교사 3가족을 이번 8월 20일에 태국에 초청하여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려고 예산을 배정하였다. 남,여신교회와 청장년선교회 그리고 각 부서에 해외선교사를 매칭시켜 지원토록 시스템화 하였다. 현재 12개국에 14선교사 가정을 후원하고 있는데 년간 선교비 지출은 1억 3천만원 정도이다. 교회가 좀 더 크다면 더 많은 선교도 할 수 있겠는데 아쉬운 마음이 크다. 부끄럽지만 성시화 신문 편집부에서 각 교회 선교프로그램들을 소개하며 함께 나누고 싶다하여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본다. 자랑이 아니라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다.

글/박인관 목사(광염교회)

선교하는 교회 스토리 2

"춘천그리스도의 교회" 땅끝선교회 이야기

한 20년 전 전혀 생각지 않게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방글라데시 선교회란 이름으로 매년 선교팀을 구성해서 가난한 그 나라를 방문해서 전도 집회를 하고 쌀을 나누어 주고, 구제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수도 다카의 빈민가 몰라덱에 세워진 초등학교 아이들 300여명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10년 동안 계속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선교회 이름을 땅끝선교회로 개명을 하고 좀 더 여러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인도, 캄보디아, 필리핀,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네팔에 마음을 쓰게 하였습니다. 네팔은 2년 전 2015년 4월 15일 진도 7.9의 지진으로 국토 17%가 파괴되었고,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는 참사가 났습니다. 그때 여진(餘震)이 지속되던 7월 초에 위험하다는 만류를 뒤로 하고 긴급구호단을 꾸려서 네팔로 들어가서 무너진 집을 짓는 일, 비타민을 나누어 주고, 교회 건물에서 치료를 해주는 일, 사역자들을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과 사역비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개교회주의"이다 보니 개교회의 자율성은 최고로 보장되지만 교단의 연합적인 힘이 약합니다. 이러다 보니 해외 선교사들을 거의 돌보지 못해 고아처럼 흩어져 각지에서 지마다 고군분투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이것이 안쓰러워서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선교라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금년에 제4회 필리핀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 대회를 지난 6월 12일(월)-17일(토)까지 개최했습니다. 터키, 네팔,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키르키스탄, 칸밍의 선교사들 12명과 한국에서 함께 간 참가자 12명 총 24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참여 선교사들은 개인과 교회의 후원으로 항공권을 포함 전액무료로 참여케 하였습니다. 작은 힘으로 좋은 섬김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글/회장 조영호 목사(춘천그리스도의 교회)





춘천 교회 선교소식

GBT(성경번역선교회) 네팔 툼룸족 신약성경 봉헌 감사예배



2017년 7월 16일(주일) 저녁7시, 주향교회(이병철 목사)에서는 GBT 춘천지부(김원중 목사) 성경봉헌 감사예배가 드려졌다. 19년만에 네팔 툼룸족 신약성경을 마치고 드리는 봉헌예배였다.

이날 말씀을 전하신 염동헌선교사는 '성경번역은 현지인들과 함께 사는 것이며, 복음을 삶으로 번역하는 것'이라며, 아직 1700여개 종족이 신약성경도 번역되지 못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 주셨다. GBT 성경번역사역을 후원하는 교회들과 GBT 선교사님들이 함께 연합으로 드린 성경봉헌감사예배는 네팔 툴룽족 구약성경 번역작업과 선교사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마쳤다.

취재/사진 이은정

"효자감리교회" 국제교회가 캄보디아 단기선교팀 후원 바자회 개최하다



효자감리교회(김종호 목사)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국제교회에서 2017 여름에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단기선교팀을 파송한다. 이 단기선교팀을 위한 기도 및 재정모금을 위한 한끼식사 바자회가 교회 식당에서 열렸다. 여러 나라의 음식을 다양하게 만들어 선보였는데 국제 음식박람회처럼 훌륭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국제교회 가족과 우리교회가 좋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국제교회는 23개국 유학생 및 원어민강사로 구성된 다국적 교회이다. 몇몇의 신실한 형제자매들과 한 분의 선교사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끌고 있다.

"효자감리교회" 캄보디아에서 씨나와 찌나 형제가 왔다



캄보디아에서 믿음 안에 신실한 씨나와 찌나 형제가 와서 한 가족이 되었다. 현지 캄보디아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탁하신 형제들이다. 이 형제들은 기도할 때 한국어로 한다. 한국어 실력도 대단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은 더 대단한 믿음 좋은 형제들이다. 졸업 후 자신이 사랑하는 고향에 돌아가 조국을 위해 일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효자성도님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로 학업은 물론 신앙도 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대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형제들은 뜻을 전하였다.

명예기자 효자감리교회 송은실 권사

"순복음춘천교회" 필리핀 단기선교 소식



지난 6월 11일(일)부터 17일(토)까지 순복음춘천교회(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담임 이수형 목사) 필리핀 단기선교팀이 필리핀 앙겔레스와 뉴에바시아 지역에서 단기선교를 진행하였다. 이번 단기선교는 크게 2017 필리핀 구국기도대성회 사역과 아이따족 청소년 집회, 까뚜뚜보 초등학교 급식, 합동결혼식, 망고나무 심기, 아이따 청소년 도시체험 등을 통한 아이따족 섬기기가 주사역이었다. 이수형 담임목사의 집회 말씀사역과 함께 성도들의 다양한 문화선교사역(난타, 몸찬양, 혼성 중창, 색소폰, 창, 드라마)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름답게 진행되었다. 2017 필리핀 단기선교팀은 77세 장로로부터 13세 중학생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특별히 이번 단기선교팀에는 21명의 중고등부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하며 미래의 선교 주역들이 비전을 함께 나누는 은혜를 누렸다.

명예기자 순복음춘천교회 정종승 목사

"한아름선교회" 부흥회 개최



한아름선교회(이사장: 홍요셉 목사, 대표: 조영춘 목사)가 1주년을 맞아 7월 2일(주일)부터 5일(수)까지 예사랑교회에서 부흥회를 개최했다. (참여교회: 거성, 예사랑, 한울섬김, 푸른초장, 고은, 신북, 제자들, 주향) 참여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찬양인도와 특별찬양, 대표기도 순서를 맡았다. 강사인 김대성 목사(소명중앙교회)가 "성물, 생명책과 책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봉사를 했다. 한아름선교회는 중국과 일본에 선교사들을 파송 후원하고, 춘천 성시화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세워졌다. 금번 부흥회를 계기로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회복하였고, 선교사들을 안정적으로 후원하는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아름선교회는 2016년 6월 19일에 창립하였다.

명예기자 신북교회 이영규 목사

춘천직장선교회 제1기 직장선교대학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산하 한국직장선교대학(지도목사 이재웅)은 지난 4월에 개설한 춘천직장선교대학 제1기 1단계 12주간의 훈련과정을 마치고, 7월 17일(월) 종강식을 온의동 효신교회(효신선교회)에서 가졌다. 제1기 훈련에는 강원도청, 강원일보, 앤투어 등 춘천 연합회 소속 각 직장선교회 신우회원 7명이 참여하였으며 강의이수, 전도실천, 과제물 제출 등을 잘 마치고 모두 수료하였다.



이날 1부 종강예배에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마인산 이사장(광염감리교회)은 요한복음 20장 19~23절을 통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흩어지는 교회로서 직장선교의 중요성과 훈련과정에서 1실천)과제를 위해 4영리를 전했지만 앞으로는 영혼구원을 위해 4영리를 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부 사랑과 감사 시간에는 훈련 중 도전받은 이야기, 전도실천에 따른 감동, 훈련이후의 비전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김양수 훈련생(평성교회 안수집사, 강원도청)은 직장선교회 조직구성을 위해 섬김과 봉사의 큰 틀에서 비전을 발표하였으며, 윤창호 훈련생(가산감리교회 장로, 강원도청)은 바쁜 일정 속에서 짬짬히 보충수업까지 받아가며 어렵게 수료하게 된 소감을 발표하였다. 정민희 훈련생(충인성결교회 집사, 강원도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니게 된 직장생활과 훈련과정의 성령충만한 경험담을 발표하였으며, 공지천에서 전도실천을 할 때 벤치에 앉아 있는 어르신께서 말을 걸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실 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김지현 훈련생(춘천동부교회 집사, 앤투어 대표)은 "늘 느끼는 것이지만 부족한 자녀에게 더 관심 갖고 도우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전도훈련 가운데서도 느낄 수 있었다. 준비된 영혼을 붙여 주셔서 전도실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서 감사한다. 앞으로 직장선교대학 훈련을 통해 좀 더 체계적으로 전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자신감도 생기고 사영리를 통해 비지니스하면서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왕표 훈련생(춘천신성감리교회 권사)은 베트남 치갓집 마을을 방문하여 4영리를 통해 장모님과 치갓집 식구들을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한 이야기들로 지상명령 성취의 감동을 느끼게 하였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조영춘 사무총장(에광침례 선교목사)은 격려 말씀을 통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훈련과정 잘 마친 훈련생과 멀리 서울과 대전에서 춘천까지 오가며 섬겨준 직장선교대학 간사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앞으로 직장선교대학 훈련에 아낌없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직장선교대학은 1988년 훈련을 시작하여 현재 서울, 경기, 세종, 대전, 인천, 나주 등 국내 16곳과 필리핀에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00여명이 훈련을 받고 활발하게 직장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훈련목적은 지역 및 직장에서 충성된 그리스도인을 선발하여 훈련한 후 직장 및 지역 복음화를 위해 직장선교대학을 확산하여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고 영적 승법 번식가의 삶을 살도록 하는데 있다.

훈련과정은 1단계(12주차), 2단계(11주차), 3단계(TOT, 9주차)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한국대학생선교회(CCC) NLTC와 공동으로 제작한 훈련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강의이수, 주간생활보고서, 독서, QT, 암육을 실천목표로 훈련하고 있다.

글/ 김대수 권사(참된교회,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춘천홀리클럽 "창립 제21주년 기념선교대회" 개최



6월 11일(주일) 저녁7시30분에 석사감리교회(손학균 목사)에서는 춘천홀리클럽(김종열 회장)이 창립 제21주년을 기념하여 선교대회를 개최했다. 춘천을 성시화, 거룩한 성령운동 회복, 지역사회 심김을 목표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선교대회를 준비하며 회원들이 기도해왔다. 이날에는 부회장 강철주 장로(창대교회)의 사회, 남준섭 장로(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장, 순복음춘천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회장 김종열 장로(신성교회)의 강사소개가 있었다. 감사 석기호 장로(광장교회)의 성경봉독 후, 임마누엘 찬양대(석사교회)와 홀리코러스의 찬양이 있었다. 이 날 강사에는 주성민 목사(세계로금란교회)가 초청되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요5:7)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주목사는 세계로금란교회 부흥의 역사를 소개하며 "오직 예수를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하며,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교회를 세우는 헌신된 신앙"으로 가능했음을 영상을 통해 간증하며 선포하여 큰 도전을 주었다. 사무부국장 한택수 장로(온누리교회)의 헌금기도에 이어 석사 플롯 앙상블의 헌금특송이 있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박인관 목사(광염교회)의 격려사와 춘천기독교연합회장 박상철 목사(신성교회), 최동용 춘천시장의 축사가 있었고, 사무국장 김철수 장로(석사교회)의 광고에 이어 춘천목회자연합회장 손학균 목사(석사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쥬빌리 66차 춘천모임 평화한국 세이레 기도회로



6월 12일(월) 저녁7시15분에 주향교회(이병철 목사)에서는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66차 6월 춘천모임은 평화한국(허문영 박사) 세이레 기도회로 가졌다. 홍요셉 목사(예사랑교회)의 사회로 김종열장로(신성교회)의 대표기도가 있었으며, 강사에는 박** 본부장(평화한국 동아시아)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라"(사43:8-1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최상도 목사(사암교회)의 인도로 기도회가 있은 후, 현홍만 목사(중부교회)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무리했다. 67차 춘천모임은 7월 10일(월)에 있었다. 이 날에는 춘천장로연합회(남준섭 장로)에서 함께 자리하여 특송과 후원금을 전달해주었다. 강사는 김재호 목사(수레바퀴선교회)였는데, 탈북자들을 돕는 현장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주었고, 이병철 목사(춘천쥬빌리 대표)의 인도로 합심 기도 시간을 갖고 마쳤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회 개최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2/4분기 정기이사회를 6월 23일(금) 오전7시에 광염교회(박인관 목사)에서 개최했다. 조



영춘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사회는 1부 예배에서는 남준섭 장로의 대표기도, 박인관 이사장의 말씀선포가 있었다. 2부 회의에서는 11분의 평신도이사를 위촉하고 위촉패 전달식을 가졌다. 이어 2/4분기 사역 계획 발표(블레싱 춘천과 만인 후원운동)이 있었고, 재정보고 후에 마무리 했다.

춘천장로연합회 제2회 6.25 구국기도회



6월 25일(주일) 오후2시30분에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목사)에서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남준섭 회장)의 주최로 제2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 1부 예배는 회장 남준섭 장로(순복음춘천교회)의 사회로, 부회장 김철수 장로(석사감리교회)의 대표기도, 감사 유영충 장로(안디옥교회)의 성경봉독이 있었다. 시온찬양대(순복음춘천교회)의 찬양에 이어 이수형목사(순복음춘천교회)의 강사소개가 있었다. 이날 강사에는 장향희 목사(든든한 교회)가 강사로 나서 "제단의 불을 피우라"(레6:12-13)의 제목으로 말씀을 설교했다. 장목사는 "이 나라가 살려면 각 제단이 살아나야 한다. 제단의 불을 피워야 한다. 내 심령에, 가정, 교회에서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기도와 말씀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선포했다. 회계 이봉수 장로(하늘평안성결교회)의 헌금기도, 이경수 장로(순복음춘천교회)가 헌금특송으로 색소폰 연주를 하며 1부 예배를 마무리했다.

2부 기도회에서는 수석부회장 김정호 장로(제일장로교회)의 사회로 춘천기독교연합회장 박상철 목사(신성감리교회)의 격려사가 있었고,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직전이사장 김창환 목사(온누리교회)의 축사가 있었다. 6.25 노래를 제창한 후, 김용헌 장로(순복음춘천교회)가 대한민국의 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하여, 김종열 장로(신성감리교회)가 춘천성시화와 연합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무식 장로(석사감리교회)가 사이비 및 이단 척결과 국군장병을 위하여 특별기도를 드렸다. 총무 김인수 장로(중앙성결교회)의 광고와 우리의 소원 제창이 있은 후, 원종국 감독(제일감리교회)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쳤다.

블레싱춘천 청년통일컨퍼런스 개최

춘천성시화운동본부(박인관 이사장)에서는 상반기 블레싱춘천을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청년통일컨퍼런스(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주관)를 6월 25일(주일) 저녁7시에 신성교회(박상철 목사)에서 열었다. 신성감리교회 청년대학부의 경배와 찬양,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박인관 목사(광염교회)의 환영사에 이어 오준 교수(전 UN대사)의 '통일한국의 비전과 기독청년의 사명' 이란 제목의 주제발표가 있었



다. 오준 교수는 6.25전쟁은 유엔이 생긴 지 5년 후에 일어난 첫 전쟁이었고, 그 후 유엔을 배경으로 남북한의 외교전쟁과 주변국들의 동향을 소개했다. "우리 민족에 대한 생각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 가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지역과 같은 말과 생활양식, 심리적 습과 문화 역사를 같이 하는 집단, 같은 얼굴을 가진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인식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통일로 가기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핵문제, 인권문제, 남북한 신뢰회복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기독청년은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위함임을 잊지 말자"고 전하였다. 이어 청년TED강연으로 문화.예술영역에 "통일, 완성을 위한 시작!"으로 이정현 형제(북한선교연합), 교회영역에 "통일세대와 북한선교"로 강디모데 형제(엔케이피플선교회), 가정영역에 "통일마중 나가다 통일가정 이루다"으로 가찬미 자매('청년, 통일하자'의 저자)가 있었다. 국악찬양으로 서하얀 자매(JWM)의 찬양이 있었고, 이병철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부본부장)의 인도로 전체기도회가 있었다. 김경태 목사(청년쥬빌리)의 인사 및 광고에 이어 박상철 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통일광장기도회

6월 26일(월) 저녁8시에 거성교회(김수복 목사)에서는 춘천통일광장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강사에는 이중인 목사(에스더기도운동본부)였다. 거룩한 대한민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기도하는 통일광장기도회는 7월 24일(월)에 조시철 선교사(사진으로 보는 역사의 진실)를 모시고 7월 모임을 갖는다.

춘천대첩과 춘천지구 참전용사 섬김의 자리 마련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6월 30일(금)에는 춘천대첩과 춘천지구 참전용사를 모시고 춘천기독교연합회(박상철 목사)와 춘천성시화운동본부(박인관 이사장), 춘천장로연합회(남준섭 장로)가 마음을 모아 섬김의 자리를 마련하여 오찬을 대접하며 선물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6.25 참전용사이신 분들은 이미 팔순을 넘어 거동이 어려워 참여하지 못한 분도 계셨지만, 일곱 분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그 당시 전투상황들을 소상히 들려주셨다. 안타까운 것은 한 분씩 돌아가시게 된다는 것인데, 한 분이라도 더 계실 때 대한민국을 지켜낸 춘천대첩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보존하고 후대에 알려주는 일을 해야 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는 것이다. 또한 춘천의 역사요 자랑인 춘천대첩인데, 올해 춘천시의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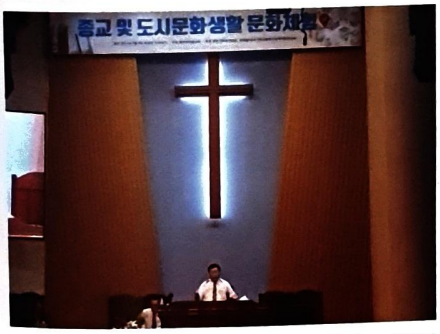
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 날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자리를 함께 하여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춘천성시합창단 특별기획공연 오페라 "예수" 성황리에 마치다



제11회 춘천성시합창단(지휘 윤창호, 단장 남궁연장로) 특별기획공연 오페라 "예수"가 지난 7월 8일(토)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오페라"라는 형식이 다소 생소하지만 500여명의 관중은 환호와 뜨거운 감동으로 화답하며 여기저기 감격의 눈물로 넘쳐났다. 80여명이었던 출연자의 뒷이야기도 감동적이다. 단원과 함께 참여한 청년은 "너무 눈물이 흘러 노래를 부를 수 없어서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밀려오는 감격은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 우리의 몸짓과 음악은 아마추어이지만 그 이상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셨다.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한 이번 공연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고 있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 춘천 교회와 후원자들의 후원과 기도에 감사드리며, 춘천성시합창단 사역에 동참할 단원들도 모집한다. [문의: 단무장 이기영 집사, 010-2529-6193]

하나원 교육생 종교 및 도시문화생활체험 실시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박상칠 목사)가 주관하고, 한정협(한국기독교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이 후원하는 하나원 교육생 종교 및 도시문화생활체험 행사가 지난 7월 8일(토)에 한마음침례교회(김성로 목사)에서 있었다. 이 날은 춘천 침례교단의 섬김으로 진행되었다. 홍요셉목사(한기침 춘천지방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조영춘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는 대표기도, 박상칠 목사는 환영사로 탈북민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고, 설교에는 김성로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노성호 교수(한림대)의 강원도의 역사와 지리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탈북민들과 한마음교회 봉사자들로 구성된 각 조별로 6개의 코스를 선택하여 춘천의 명소 및 교육시설, 관공서, 병원 등을 방문하여 남한 정착에 필요한 체험을 했다.

취재/사진 이은정

잠깐!

"양성평등"과 "성평등" 바르게 알자!

건강한 사회를 위한 시민연대 제공



■ 공통점 : 남녀의 구분을 없앤다.

■ 차이점 : **양성평등** : 남.녀의 사회적 역할 구분과 제도로부터 오는 차별을 없앤다.

성평등 : 동성애등의 법적 보호 및 지원은 물론 아빠/엄마, 남편/아내 등의 어휘 삭제, 남녀 공용화장실 설치, 등 남녀를 구분하는 모든 언어와 제도를 없애고 궁극적으로는 남녀의 생물학적 구분마저 없앤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다르다

의학신문 2017.07.11자

이명진 명이비인후과의원장 〈의사평론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개헌 논의가 물밑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안정된 정치구조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잘 반영한 개헌안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의 내용 하나 하나가 국민들이 동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작은 법안을 하나를 만들 때에도 낱말 하나, 토씨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자칫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단어나 문장의 의미가 뒤늦게 부정적 영향을 담은 독소 조항으로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스리슬쩍 단어 하나를 바꾸거나 착각하도록 만들어진 법문구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윤리기준까지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

개헌특별위원회가 2017년 1월부터 가동되어 많은 논의를 통해 개헌안의 담을 내용이 속속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준비되고 있는 내용 중 대통령의 임기나 행정부처의 변경 등의 정치적인 문제는 놓아두고, 눈에 띄게 걱정스러운 문구가 있어 올바른 개념을 국민들과 입법위원들과 공유하려고 한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에 대한 문제점이다. 개헌특위 위원들이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입법을 하는 것 같다는 우려가 된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다른 개념이다. 양성평등은 남여의 차별을 하지말자는 의미로 보면 되고, 성평등은 젠더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가 반영된 개념으로 매우 급진적이고 위험한 개념이다. 생물학적 성을 해체하고 자신이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뜻이다.

성평등은 자신이 때에 따라 남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되기도 한다. 성평등이 되면 생물학적 남녀의 성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연히 동성애라는 개념이 없어지게 되어 합법적인 개념이 되어 버린다.

이 개념을 도입한 미국은 최근 군부대에서 자신을 여자라고 칭하는 남자들이 벌거벗고 여군들과 샤워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군 중에 남자의 성기를 가진 군인과 같은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은 참고 받아들여야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영국의 유치원과 스웨덴에서도 "아빠(father)"와"엄마(mother)"라는 단어의 사용이 금지되고, 스위스에서는 공식서류에 parent1, parent2를 사용한다는 소식이다. 생물학적 남녀의 구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성적 중립(gender neutral)적 표현들로 대체되고 있다. 비슷한 뉴스가 오스트리아 정부에서도 들려온다. 생물학적 성을 해체하자는 성평등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결과다. 이런 젠더이념은 급진적인 네오 막시즘과 궤를 같이하는 개념이다.

이 이데올로기가 바로 젠더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젠더 주류화'라는 말을 잘 알지 못한다. 그 결과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 정치인들과 미디어의 일부가 젠더 주류화의 제교육 프레임에 갇혀 버리고 말았다. 인류를 재교육시켜 남녀의 경계를 허물고 가정을 해체하는 것이 젠더주류화의 목적이다. 그 실천방안으로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이 헌법이나 법률, 자치단체 조례에 성평등이라는 문구를 집어넣는 작업이다.

이런 위험성을 모르고 입법위원들이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혼동해서 사용한 것이라면 위험천만한 일이고, 알면서도 은근 슬쩍 집어넣은 행위라면 가정과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위험한 사상을 집어넣은 것으로 국민에 대한 암묵적 기망행위이다.

의학적으로도 생물학적 남녀의 구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남녀의 정상범위가 다르고 생의 주기에 따른 몸의 변화도 서로 다르고 호르몬의 변화도 남녀가 다르다.

남녀가 차별 없는 교육의 기회, 취업의 기회, 의사표현의 기회, 가사와 양육의 분담을 갖자는 양성평등의 개념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발전시켜야 할 개념이다. 하지만 생물학적 성을 해체하고 가정을 해체하는 급진적인 성평등의 개념은 양성평등과 분명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남녀가 차별 없는 교육의 기회, 취업의 기회, 의사표현의 기회, 가사와 양육의 분담을 갖자는 양성평등의 개념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발전시켜야 할 개념이다. 하지만 생물학적 성을 해체하고 가정을 해체하는 급진적인 성평등의 개념은 양성평등과 분명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춘천 교회 소식

춘천중앙감리교회 예배당 복원 감사예배



7월 16일(주일) 오후4시 춘천중앙감리교회(권오서 목사)에서는 작년 7월 18일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전소되었던 예배당을 1년 만에 새롭게 복원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119년된 교회로 강원도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이기에 교인들은 물론 교단 교파, 국내외를 넘는 후원이 이어졌다고 한다. 이에 광야교회를 끝내고 아름답게 복원하여 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 날에는 국내외 교계 지도자와 성도들로 예배당이 가득 메워졌다. 화재 철거 복원의 과정을 직접 감당한 춘천중앙감리교회 권오서 감독과 성도들은 광야교회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재를 뒤집어쓰듯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고백했다. 불로 연단되어 정금같이 나오듯 보이는 예배당이 아름답게 복원되었고, 또한 교회의 비전을 새롭게 하는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보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워가며,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새롭게 방향을 정하고 나아간다는 선포였다. 광야교회의 1년간의 권오서 감독의 설교집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그 동안의 시간들을 잘 대변하고 있다. 예배당 복원 감사예배를 드리며 119년된 교회의 저력을 확인하였고, 서로 섬기며 일으키는 모습에서 한국교회의 소망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취재/사진 이은정

"춘천중앙감리교회" 예배당 복원 기념 사랑의 나눔

춘천중앙감리교회(권오서 목사)에서는 7월 30일(주일)을 예배당 복원을 기념하며 지역사회 공헌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사랑의 주일로 지킨다. '사랑의 쌀 800포'를 춘천시청에 전달하여 읍,면,동사무소 및 기관을 통해 춘천시 저소득 가구및 소외계층에 전달한다.

취재 이은정

"순복음춘천교회" 청정 호반도시 춘천을 위한 환경정화 캠페인



5월 27일부터 6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목사)에서는 청정 호반도시 춘천을 위한 환경정화 캠페인을 벌였다. 5주 동안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였는데, 춘천 시내와 본 교회 주변 및 등산로, 춘천 외곽인 소양 3교 및 도로, 소양댐 방향 도로 및 자전거 도로 등에서 쓰레기 줍기와 잡초정리 등을 실시하였다. 이번 환경정화 캠페인에는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비롯하여 장년부까지 연인원 500여명의 성도들이 동참했다.

명예기자 순복음춘천교회 정종승 목사

'순복음춘천교회' 주문진 지역 전도사역 협력



춘천성시화를 위하여 매주 목요일마다 교구별로 전도사역을 해 온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목사) 전도팀 80여명이 6월 13일(화) 주문진지역 전도와 주문진순복음교회 전도사역을 하였다. 작년에는 단양순복음교회(담임 김성진 목사) 요청으로 전도팀이 단양지역전도를 하였으며, 올해에는 주문진순복음교회(담임 방주훈 목사) 요청으로 전도사역을 하게 되었다. 춘천에서와 같이 사랑의 봉사대가 교구별로 천막을 설치하고, 부침개, 떡볶이, 음료수, 과일, 풍선전도, 환경정화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지를 전하며 전도 활동을 하였다. 80여명의 전도팀은 강원도립대, 항구쉼터, 중앙공원, 주문진초등학교, 주문진순복음교회 등 주문진 시내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명예기자 순복음춘천교회 정종승 목사

"사랑의 교회" 2017년 사랑의 음악회



사랑의 교회(윤대영 목사)는 지난 6월 11일(주일) 독거어르신 50가정 반찬지원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하였다. 올해로 제9회를 맞이하는 이번 음악회는 강원 CBS 박윤경 아나운서의 사회와 윤복희 권사님의 간증과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를 주관한 사랑의 교회 민사국(민은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시는 관공서 춘천소방서, 소방서효자분소, 서부지구대, 퇴계동사무소 및 노인정 어르신들을 찾아가 섬기는 사역을 한다. 매년 사랑의 음악회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으로 월드비전과 함께 독거노인 반찬지원 사업도 후원하고 있다.

명예기자 사랑의 교회 이은혜 집사

세계성시화 소식

2017 우크라이나 성시화대회 개최

현지인 중심으로 열린 첫 대회로 의미



대부분의 국민이 동방정교회 신자인 우크라이나에서 지난 주말 한국 개신교 단체가 주관하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성회가 열려 2만여명이 운집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김인중 목사, 공동총재 전용태 장로)가 주최한 '2017 우크라이나 성시화대회'가 16~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팔라츠 스포르타 경기장에서 열렸다. 개신교 복음화율 3%인 이 나라에서 이처럼 많은 성도가 모여 우크라이나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번 대회는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해 말 행정명령을 통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지시한 게 계기가 됐다. 마침 올해가 한·우크라이나 수교 25주년이고 고려인 이주 80주년인 점을 기념해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이번 대회를 주최한 것이다.

이번 대회는 현지교회가 중심이 돼 열렸다. 우크라이나 성시화운동본부가 결성되고 행사 준비위원회가 구성됐다. 한·우크라이나 국가리더십포럼, 기독실업인 세미나 등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성시화대회는 1972년 7월 31일 춘천성시화운동 전도대회에서 시작됐다. 그동안 미국과 과테말라, 독일 등지에서 해외 성시화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일보 2017. 06.19자 중에서

성시화운동 지도자 전략회의



성시화운동 지도자 전략회의가 7월 24일(월)에 해오름교회(최낙중 목사)에서 있었다. 언론보도를 통해 헌법 개헌안에 '성평등'을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있어서 이를 대처하기 위해 전국 광역시도 대표회장 및 사무총장, 시군 대표회장(본부장) 및 사무총장(사무국장)이 초청된 가운데 열렸다.

2017 쿨앤홀리 페스티벌 인 태백

태백성시화운동본부가 주최하는 2017 쿨앤홀리 페스티벌 인 태백 행사가 7월 31일(월)부터 8월3일(목)까지 태백에서 열린다. 태백성시화를 위한 기도와 전도, 사랑의 실천, 지도자 초청 특강, 부부생활 세미나, 태백산 정상 기도회, 검룡소 기도회, 찬양집회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없으며, 숙식은 자유롭게 하면 된다.

2017 유럽성시화대회 & 종교개혁탐방

2017 유럽성시화대회가 8월 21일(월)-24일(목) 베를린비전교회(김현배 목사)에서 "종교개혁의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열린다. 2017년 유럽 종교개혁탐방은 8월 24일(목)-9월1일(금) 으로 계획되어 있다.

편집부

강원기독교연합회 소식



"강원기독교연합회(사무총장 오의석 목사)가 지난 7.20(목) 평창중앙감리교회에서 모였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이 영적 올림픽이 될수있도록 강원도의 교회와 단체들이 기도와 협력을 아끼지않을 것을 서로 다짐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 9월 24일(강사 권오서 감독, 춘천중앙교회)에 강원도 각 시군의 교회들이 모여 햇불기도회를 평창 현지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자문위원 유진형 목사 안디옥감리교회	**자문위원** 권오서 목사 춘천중앙감리교회	**자문위원** 유동선 목사 춘천중앙성결교회	**이사장** 박인관 목사 광염감리교회	**수석부이사장** 이수형 목사 순복음춘천교회	**본부장** 박상칠 목사 신성감리교회
부본부장 이병철 목사 주향장로교회	**사무총장** 조영춘 목사 한아름선교회	**사무차장** 최상도 목사 사암성결교회	**사무국장** 이은정 권사 주향장로교회	**회계** 홍순신 권사 평화동산교회	**감사** 황병호 장로 춘천제일장로교회
홀리클럽회장 김종열 장로 신성감리교회	**홀리사무국장** 김철수 장로 석사감리교회	**감리교단** 손학규 목사 석사감리교회	**감리교단** 이성신 목사 창대감리교회	**감리교단** 안창원 목사 우두감리교회	**감리교단** 임용웅 목사 춘천명성감리교회
감리교단 최영조 목사 갈릴리교회	**감리교단** 김종호 목사 효자감리교회	**장로교단** 김창환 목사 온누리교회	**장로교단** 김원중 목사 우리교회	**장로교단** 김창성 목사 춘천제일장로교회	**장로교단** 김한호 목사 동부장로교회
장로교단 조용아 목사 성광장로교회	**장로교단** 지용찬 목사 은혜장로교회	**장로교단** 정재호 목사 늘사랑교회	**성결교단** 김선일 목사 소양성결교회	**성결교단** 피종호 목사 나눔성결교회	**성결교단** 이주호 목사 소양제일성결교회
성결교단 신재원 목사 새춘천교회	**성결교단** 오생락 목사 하늘평안교회	**성결교단** 이영규 목사 신북성결교회	**순복음교단** 하기철 목사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교단** 신성균 목사 열린순복음교회	**순복음교단** 오의석 목사 순복음조은교회
순복음교단 이상열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침례교단** 차덕수 목사 강원침례교회	**침례교단** 김수복 목사 거성침례교회	**침례교단** 이지인 목사 춘천침례교회	**침례교단** 홍요셉 목사 예사랑교회	**침례교단** 정선문 목사 제자들교회
그리스도의 교단 조영호 목사 춘천그리스도의교회	**구세군 교단** 이봉석 목사 춘천구세군교회	**전문위원** 성기문 장로 전 춘천법원장	**전문위원** 이영길 선교사 우간다대학교학장	**전문위원** 박민수 장로 전 춘천교대학장	**전문위원** 윤재선 목사 산천무지개교회
평신도이사 전 시의장 김영일 집사 중앙감리교회	**평신도이사** 영광한의원 이용규 장로 석사감리교회	**평신도이사** 참사랑의원 정형만 장로 소양제일교회	**평신도이사** 매일관광 허봉 장로 중앙감리교회	**평신도이사** 우리소아과의원 이병일 장로 나눔성결교회	**평신도이사** 와이신협 임운식 장로 순복음춘천교회
평신도이사 앤투어여행사 김지현 집사 동부장로교회	**평신도이사** 디아펠리즈 남궁연 장로 중앙성결교회	**평신도이사** 강원농원 임희방 장로 동부장로교회	**평신도이사** 영서화물 강연술 장로 신성감리교회	**평신도이사** 쟈스민 박선남 집사 한제채플	

알려드립니다

알림 등록 문의 : 033.256.1260

춘천홀리클럽 (홀리클럽 정기기도회)
일시 매 짝수달 셋째주 화요일 오전 6:30
장소 지도 목사님 또는 임원교회 순회 시행
회비 한금으로 진행
http://cafe.daum.net/ccholly (춘천홀리클럽)

협몬산악회(기독동아리)회원 모집
일시 매주 토요일 100대 명산 및 춘천분지 종주 산행
문의 010.8798.8732 (정학수)
http://cafe.daum.net/ccgmm

한마음 탁구회
일시 매일아침 7시30분
장소 더즐거운탁구(후평1단지사랑집구)
회비 월 4만원
문의 010.4306.3818

교회음악(지휘)를 배우고 익히는 스터디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7시
장소 봉의고등학교 정문 앞 봄내피아노 1층
문의 010.6375.8874

춘천성시합창단 운영 (단원수시모집)
정기연습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장소 사랑감리교회
문의 010.2529.6193 (이기영 단무장)

교역자 축구 선교회 회원모집 모이맨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장소 공지천 친디구장
문의 010.5372.6200 (지용찬 목사)

춘천쏠리데오 사모합창단 수시모집
대상 목회자 사모, 연령제한 없음
문의 010.6378.2261 (지휘자)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 중풍, 장애 등 요양보호사 들봄이 필요하신 분
문의 : 010.7757.4972

춘천성시무용단원 수시모집
일시 : 일주일에 두번 오전반, 저녁반
장소 부안길 6번길 18
문의 : 010.3180.5330 (지도 김귀선)

춘천목회자 색소폰 동아리 모집
대상 : 춘천시내에 계시는 목회자
일시 : 매주 월 오후 2시 - 5시
장소 : 나눔교회
문의 : 010.5521.37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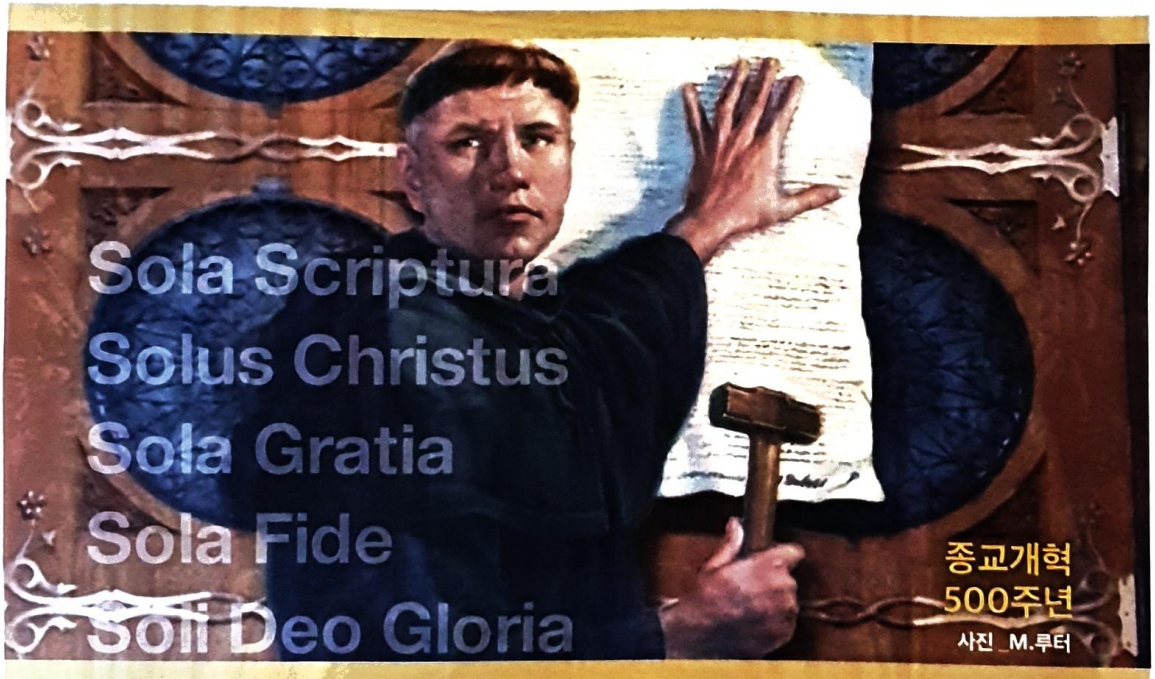
목회자 족구 회원 모집
일시 : 월-토요일 매일 오전 6시
장소 공지천 족구장
문의 : 011.361.1995

춘천 호스피스
사랑과 믿음으로 말기암 환자를 돌봐드립니다
대상 : 말기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문의 : 033.263.5455(입원상담)









45주년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성시선교대회

2017. 9. 17(주일) - 9. 23(토)

오직 성경 · 오직 그리스도 · 오직 은혜 · 오직 믿음 ·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주관/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목회자연합회, 춘천홀리클럽,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
협력기관 / 춘천교경협의회, 춘천장로교연합회, 춘천감리교연합회, 춘천성결교연합회, 춘천침례교연합회 춘천순복음연합회, 춘천그리스도교연합회,
춘천구세군연합회, 성시합창단, 사모합창단, 성시무용단, CCC, JDM, 예수전도단, IVF, GBT, DFC, ESF, SFC, 예스컴, 어린이전도협회,
베드로선교센터, 한국국제기드온협회 춘천캠프, 강원군선교연합회, 강원도청기독신우회, 강원도의회기독신우회, 춘천법원신우회, 춘천시직장선교연합회,
춘천기사선교회, 국기조찬기도회 강원도지회, 춘천YWCA, 춘천YMCA, 월드비전, 남부사회복지관, 강원일보, 도민일보, 강원CBS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춘천성시화운동을 위해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복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인

강민승 강인찬 강석봉 강목자 고순덕 곽혜옥 권경애 권여림 권영일 권영자 권혁자 권현정 김경순 김경희 김관수 김교성 김금교 김도희 김명희 김미경 김미라 김민섭 김보경 김복심 김복자 김상옥 김성희 김세환 김수국 김숙희 김순덕 김순옥 김연숙 김영권 김영명 김영수 김영태 김영희 김예은 김옥선 김옥자 김용배 김용기 김은아 김은희 김일섭 김정미 김정숙 김정희 김종은 김종익 김종찬 김주봉 김주혁 김지영 김추옥 김춘화 김춘희 김태균 김학자 김현주 김현철 김혜란 김혜숙 김혜순 김화분 남궁자 남상구 남하은 류현구 문현숙 민경원 민병임 박 현 박갑출 박경미 박금희 박노항 박덕남 박동희 박만규 박명관 박명선 박인수 박병화 박상준 박상혁 박소영 박순배 박영호 박옥화 박완영 박은경 박은혜 박정애 박춘자 박필상 박혜성 박 희 박희상 배진철 배한나 배향미 변종숙 서묘석 서성진 서순옥 서현애 성숙자 성완경 성화숙 손병서 손임순 송갑수 송경화 송영인 송향순 신달호 신동경 신동겸 신미연 신성균 신안섭 신옥자 신은수 심효선 안순연 안현주 양미선 양봉남 양혜경 어금옥 엄근혜 엄혜련 여경구 연송흠 연정화 염은희 염정옥 오순자 오제영 오준영 오흥금 오흥수 용영욱 원예슬 원유미 원희정 유 근 유근창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용균 유재란 유재형 유정순 유정희 윤성자 윤애자 윤은미 윤은옥 윤정희 윤학병 윤흥욱 이갑용 이광필 이규현 이기환 이동호 이명선 이명숙 이영순 이명화 이무식 이문희 이미경 이병일 이보람 이봉연 이상만 이선임 이성숙 이성은 이세희 이소영 이순자 이승희 이연화 이영애 이영윤 이영준 이영진 이용숙 이유진 이윤규 이윤주 이은경 이은정 이은준 이지영 이진주 이충훈 이태우 이현석 이혜란 이혜란 이혜옥 임경혜 임덕수 임소희 임순희 임쌍용 임영광 임인숙 임정이 임청용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은희 장창순 장형성 전윤배 정계지 정국환 정규시 정미경 정미선 정석호 정선문 정성옥 정우진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선 정인선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종승 정진호 정치웅 조기숙 조남진 조돈산 조명숙 조인지 조성경 조소현 조진경 주영호 주신자 지영필 지윤성 차재옥 최광우 최귀숙 최귀순 최명기 최미영 최선이 최승경 최영달 최영희 최옥순 최은영 최인숙 최정자 최종인 최종호 탁광희 표복순 하윤옥 한건영 한명수 한원순 한정순 한정연 한진희 함종현 허순영 허인영 현순덕 현재용 홍성애 홍순복 홍영숙 홍의표 홍인숙 홍택기 황금심 황기현 황병찬 황병호 황정숙

후원교회

강원침례교회 광염감리교회 거성침례교회 그말씀교회 나눔성결교회 늘사랑교회 동신교회 신천무지개교회 사랑의교회 사암성결교회 석사감리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성감리교회 옥산포교회 온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예담교회 예사랑교회 예수촌교회 주의숲교회 주천양교회 주향교회 축복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감리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임신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침례교회 한빛교회 후평제일교회

후원기관 및 사업체

JDM 건강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매일관광 베드로선교센타 설곡산기도원 이가갤러리 영광한의원 월드비전 참사랑내과 춘천외이신협 행복재가요양기관

※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033-256-126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춘천성시화운동본부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를 하시면 성시화운동 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